

노라 옥자 켈러의 *Comfort Woman*에 특징적인 언어변이의 번역양상*

한 미 애
(동국대_서울)

1. 들어가는 말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사회 전체로 볼 때 동일할 수 있지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또는 지역이나 신분에 따라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언어변이 현상은 소설 세계에서도 나타난다. 서술자나 등장인물에 따라 서술과 표현이 달라지며, 동일한 인물이어도 상황에 따라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게 된다. 소설은 허구 세계이지만 현실 세계가 반영되므로, 있음직한 또는 있을 법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은 소설 구성에서 꼭 필요하다.

한국계 미국작가인 노라 옥자 켈러(Nora Okja Keller)의 *Comfort Woman*에서도 서술자와 등장인물은 처한 상황이나 배경, 신분에 따라 언어를 다르게 사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5S1A5B5A07044178]

용하면서 자신을 표현한다. 특히 두 명의 일인칭 서술자는 이야기를 구성하고 서술하는 양상이 다르다. 이러한 특징적인 언어 사용은 소설을 개연성 있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각각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설의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언어변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소설 세계가 얼마나 개연성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언어변이는 크게 사용역(register)과 방언(dialect)으로 나뉜다. 할리데이(Halliday)에 따르면,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언어변이 현상을 사용역이라 하고, 언어 사용자에 따라 일어나는 언어변이 현상을 방언이라 한다(Halliday 1978: 35). 사용역과 방언은 내재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문체와도 관련되어 있어(Irvine 2001: 31), 언어변이를 분석하는 것은 문학번역에서 중요하다. 특히 사용역은 소설 텍스트의 이야기라는 상황과 관련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문학텍스트의 특성을 규정하는 데에 강력한 분석틀을 제공한다(Marco 2000: 1, Jeffery 2002: 94). 이와 더불어 방언은 등장인물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Comfort Woman*의 서술자나 등장인물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언어변이 현상을 분석하고 이 언어변이 현상이 목표 텍스트 『종군위안부』에 번역된 양상을 분석하며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 할리데이(Halliday 1978)의 사용역과 방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고, 본 논문의 분석틀을 사용역과 사회방언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Comfort Woman*과 『종군위안부』를 대조 분석하고, 그 차이를 설명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언어변이 번역양상을 정체성, 번역가의 역할 등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정리하며 결론을 맺는다.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2.1 사용역

사용역은 언어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즉 말하려고 하는 주제나 목적(담화장 field of discourse), 화자와 청자의 관계(담화관계 tenor of discourse), 전달하는 방식(담화방식 mode of discourse)에 따라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게 된다. 담화장은 관념적이거나 경험적 의미를 띠며, 타동성(transitivity), 현재시제 및 과거시제, 이야기와 관련된 사물 등으로 실현된다. 담화관계는 청자나 화자의 관계적 의미를 띠며, 법(mode), 서법성(modality), 강도(intensity), 화자나 청자가 사용한 인칭(호격) 등으로 실현된다. 담화방식은 텍스트적 의미를 띠며, 구어체나 문어체 등의 사용, 결속성(cohesion: 지시어, 접속사, 대체 및 생략, 어휘적 결속성), 주제구조 및 정보구조 등으로 실현된다 (Halliday 1978: 116-120). 할러데이의 사용역을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1〉 할러데이(1978)의 사용역

Situational elements	Semantic components	Lexicogrammatical realization
field	ideational (experiential) system	processes (transitivity), time (present, past), relevant objects
tenor	interpersonal system	mode, modality, intensity, person (speaker, addressee)
mode	textual system	written or spoken, cohesion, thematic and informative structure

할러데이가 설명하듯 사용역은 경험적 의미, 관계적 의미, 텍스트적 의미를 띠며, 따라서 사용역 분석을 통해 원천 텍스트의 의미와 목표 텍스트의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하우스(House 2015: 66)도 사용역을 통해서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의 기능적 등가(functional equivalence)를 확립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2.2 방언

사용역은 다른 것을 말하는 방식인 반면 방언은 동일한 것을 말하는 다른 방식이다. 즉, 사용역은 의미적으로 다른 반면 방언은 의미적으로는 다르지 않다(Halliday 1978: 185). 하지만 방언은 동일한 지시물을 가리키더라도 의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Nikolas 2001: 190). 다시 말해 어떠한 방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화자의 이념이 다를 수 있다.

방언은 일반적으로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으로 구분한다. 지역방언은 지역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말이며, 사투리라고도 한다. 사회방언은 화자의 신분이나 교육 정도, 경제적 정도, 성별 등에 따라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는 말이다. 이 이외에 반언어(antilanguage)도 포함될 수 있다. 반언어는 일반적으로 사회방언에 포함되지 않지만, 할러데이는 “반언어를 사회방언의 한정적 경우”에 사용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언어변이형”(Halliday 1978: 181)으로 제안한다. 어느 사회가 갈등하는 집단 즉 사회와 반사회로 나뉘어져 있다면, 반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인 반언어가 존재할 수 있다(184).

반언어는 어느 사회의 하부문화(subculture)에서 사용하는 어휘로, 문법은 지배문화처럼 사용하지만 어휘는 다른 형태를 띠는 것이다(Halliday 1978: 165). 어떤 집단이 사용하는 은어나 속어, 전문어 등이 반언어에 속한다. 반언어는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에 유대감이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사회나 개인을 재구성하여 자체의 가치 체계를 지닌 대체 사회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반언어는 재사회화(resocialization)의 수단이며, “재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개개인은 타인과 강력한 유대감이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170). 또한 반언어는 “주관적 현실을 표현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유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반언어는 또 다른 언어이다.”(172) 반언어는 작가의 정체성이나 민족성을 드러내줄 뿐 아니라 “문학 작품의 주제가 하부문화와 반사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 반언어는 문체에……중요한 역할”(Simpson 2004: 104)을 한다.

2.3 분석틀

분석틀(표 2)은 할러데이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용역과 사회방언으로 구분한다.

〈표 2〉 분석틀

언어변이	분석틀	
사용역	담화장 field	시제
	담화관계 tenor	서법성, 호칭
	담화방식 mode	직접발화, 자유직접발화
사회방언	이민자언어	어휘
	반언어	어휘

우선 사용역에서는 첫째, 시제에 따라 경험적 의미나 이야기의 주제(담화장)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다. 시제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시제를 통해 소설의 구성요소인 시간적 배경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소망이나 의무, 확신 등을 표현하는 서법성과 호칭을 통해 등장인물 간의 관계와 서술자와 독자와의 관계(담화관계)를 살펴본다. 셋째, 문학이라는 담화에서 발화(speech)를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이야기의 전달 방식(담화방식)을 분석한다. 그 다음 사회방언에서는 서술자와 등장인물이 사용하는 어휘를 통해 이민자 언어와 반언어를 분석한다.

분석틀 중에 서법성은 심슨의 분석틀을 사용한다. 심슨(Simpson 1993, 2004)은 할리데이와 파울러(Fowler)를 기반으로 서법성을 문학 텍스트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심슨은 서법성을 의무서법성(deontic modality), 인식서법성(epistemic modality), 서법성이 부재하는 경우로 나눈다. 의무서법성은 서술자나 등장인물의 소망이나 의무, 의견을 표현하며,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나 설명이 전경화 된다. 보편적 사실을 나타내는 단순현재시제, 평가를 나타내는 부사나 형용사(thoughtless, silly, smart, stupid, vain 등), need, suffer, understand, must, ought to, be supposed to, seek to 등이 많이 사용된다. 인식서법성은 서술자나 등장인물이 사건이나 동기부여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또는 서술자나 등장인물의 자기의문(self-questioning), 당혹감, 거리감이 전경화 된다. 서술자가 보고 들은 바를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이야기는 외부세계에 대한 서술자의 해석에 의존하게 된다. as if, it seemed, it appeared to be, assume, imagine, suppose, wonder, maybe, perhaps,

possibly, apparently(보기에는), evidently(아무래도, 어쩐지), must have p.p, might have p.p, could have p.p 등이 많이 사용된다. 서법성이 부재하는 경우는 서술자가 주관적인 평가나 해석을 하지 않고 사건을 중립적으로 묘사하여, 객관적인 사실주의 형태를 띠게 된다.

분석들 중에 직접발화(direct speech)와 자유직접발화(free direct speech)는 등장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화법(discourse)의 일부이다(Leech and Short 1981, Simpson 1993, 2004, 한미애 2011). 직접발화는 말하는 내용을 전달동사와 인용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She said, "I have to work at it."과 같은 경우이다. 이 문장에서 인용표시를 없애고 She said, I have to work at it.으로 서술하면 자유직접발화가 된다. 조의연과 한미애(2012: 185)에 따르면, 직접발화와 자유직접발화의 문맥적 효과는 다르다. 직접발화는 규범적인 서술 방식이므로 무표적(unmarked)인 반면, 자유직접발화는 규범에서 벗어나는 유표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직접발화는 특별한 문맥적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반면, 자유직접발화는 글을 읽는 노력은 다소 들더라도 특별한 문맥적 효과를 일으킨다.

3. *Comfort Woman*과 『중군위안부』 분석

*Comfort Woman*은 1998년에 American Book Award를 받은 작품이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에게 성적 착취를 당한 어머니(아키코/순효)와 딸(베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어머니와 딸이 각각 이야기를 서술한다. 2장에서 언급한 분석들을 기준으로 원천 텍스트(ST) *Comfort Woman*과 목표 텍스트(TT) 『중군위안부』를 대조 분석한다.

3.1 사용역 분석

3.1.1 담화장

*Comfort Woman*의 일인칭 서술자는 베카(Beccah)와 베카의 어머니 아키코

(Akiko)이다. 이 이야기는 총 1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베카는 1장, 3장, 5장, 8장, 12장, 15장, 17장, 18장에서 서술을 담당하고, 아키코는 나머지 장에서 서술을 담당한다.

담화자인 주제는 시제와 관련되어 있다. 베카가 글을 쓰는 시점은 현재시제로 서술되고, 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어머니에 대한 추억, 어머니의 죽음과 장례, 5살 무렵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 어머니 장례준비 등은 모두 과거시제로 서술되어 있다. 한편, 아키코의 현재는 베카가 한 살도 채 안되었던 시점이고, 과거는 그 이전에 경험한 이야기이다. 즉,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 중군위안부로서의 빠져린 경험, 그 이후 결혼생활에서 미국선교사 남편에게 느끼는 고통, 어린 베카에 대한 애뜻한 마음, 중군위안부였던 인덕의 혼을 만나 무당이 된 이야기 등은 과거에 경험한 이야기이다.

ST에서 베카와 아키코는 각각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서술하므로, 시제에 따라 현재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과거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TT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야기에 혼동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장, 4장, 10장, 16장, 17장에서 ST와 달리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과 과거에 경험한 일이 섞여 있어 베카와 아키코의 현재 시점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우선 베카의 장을 살펴보면, (예문 1)의 ST에서는 시제의 규칙성이 나타난다. 베카는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회상을 과거시제 ‘involved, traveled, roamed, were’로 서술하고 있다.

(예문 1)

ST: According to my mother, the rituals that accompanied the major transitions in a woman's life—birth, puberty, childbirth, and death—involved the flow of blood and the freeing of the spirit. Slipping out of the body along pathways forged by blood, the spirit traveled and roamed free, giving the body permission to transform itself. Necessary but dangerous, these were times when the spirit could spin away forever, lost and aimless, severed form the body. (P185)

TT: 엄마는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변환기—출생, 사춘기, 출산, 죽음—에 수반되는 의식으로써 피의 흐름과 영혼의 해방 관계를 이야기한다. 피가 만든 길을 따라 육체에서 살짝 빠져 나온 영혼은 여기저기 자유

롭게 배회하면서 육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피할 수 없는 위험한 이때에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계속 빙빙 돌면서 가야할 길과 목적을 잃고 떠돌아다닌다. (P261)

(예문 1)의 TT는 ST와 달리 현재시제 ‘이야기한다, 준다, 떠돌아다닌다’로 서술되었다. 마치 돌아가신 베카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것 같은 혼란을 주기도 하고, 베카가 환영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베카가 글을 쓰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이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과거의 경험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과거시제로 옮겨야 하겠다. TT에서는 베카의 현재 시점이 언제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야기의 구성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진다.

(예문 2)는 아키코의 장이며 ‘her’은 베카를 지칭한다. ST에서 아키코의 현재 시점은 베카가 한 살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이다. 아키코는 현재의 경험이나 느낌을 ‘says, tells, cannot, remember’로 서술한다.

(예문 2)

ST: Her father says, Leave her to cry for a while. You're spoiling her. She needs to learn independence.

He tells me, parroting the doctor, Give her the bottle, better than breast.

But I cannot. I have heard what the doctor says, but I also remember my own mother shaking her small, limp breasts at each of her daughters, laughing as we bathed together. (P37)

TT: 그러나 그 애의 아버지는, “잠시동안 울도록 내버려 둬. 당신은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거야. 그 애는 독립심을 배울 필요가 있어.” 라며 의사 흉내를 냈고, “그 애에게 우유병을 줘. 그건 가슴보다 더 좋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나도 의사가 말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내 엄마와 딸들이 함께 목욕할 때 엄마가 웃으면서 우리들에게 작고 흐늘흐늘한 가슴을 흔들었던 기억이 났다. (P63)

(예문 2)의 TT는 ST와 달리 과거시제 ‘냈고, 말했다, 없었다, 들었다, 기억

이 났다’로 서술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키코의 장에서는 베카의 장보다 더 시제의 규칙성이 나타나지 않아 아키코의 현재 시점이 언제인지 불분명하고 이야기에 혼동을 준다. 물론 베카의 시점으로 보면 과거의 일이지는 하지만 텍스트에서는 담화장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으므로 베카의 시점과 아키코의 시점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TT에서는 불변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현재시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베카에 대한 아키코의 사랑을 전경화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예문 3)도 아키코의 장으로, ST의 앞부분은 현재시제 ‘comes, is’로 서술되고 문단이 바뀌면서 과거시제나 과거완료 ‘found, had discarded, invited’로 바뀐다. 베카가 한 살 무렵인 현재 시점에서 아키코가 인덕의 혼을 보는 장면이며, 그 다음 장면은 인덕의 혼이 처음으로 아키코 몸 안으로 들어온 회상으로 이어진다. 아키코가 종군위안소에서 도망나왔을 때 위안부였던 인덕의 혼이 아키코의 몸속으로 들어가 아키코는 무당이 된 것이다.

(예문 3)

ST: She comes in singing, entering with full voice, filling me so that there is no me except for her, Induk.

●

That first time, she found me sprawled next to an unnamed stream above the Yalu, the place where I had discarded my empty body, and invited herself in. (P36)

TT: 인덕은 성량이 풍부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들어와 내 몸을 차지 했다. 그래서 인덕, 그녀 이외에는 내 속에 아무 것도 없었다.

●

인덕은 압록강 상류의 한 이름없는 개울 옆에 쪽 뺨고 누워 있는 나를 발견했다. 거기서 나는 보잘 것 없는 내 육신을 버렸었다. 나를 발견한 첫 날 인덕은 내 육신 속으로 들어왔다. (P60-61)

(예문 3)의 TT에서는 모두 과거시제 ‘차지했다, 없었다, 발견했다. 버렸었다, 들어왔다’를 사용해서 인덕에 대한 회상으로 바뀌었고, 베카가 한 살 무렵이던

현실 세계에서 인덕의 혼을 직접 보는 장면은 상실되었다. 이처럼 TT의 아키코의 장에서는 베카의 장보다 더 현실의 경험과 과거의 경험이 명확하지 않다. 베카의 시점에서 보면 어머니 아키코의 이야기는 모두 과거에 일어난 일이므로, 과거시제로 번역한 듯 보인다. 이로써 이야기의 무게 중심이 아키코보다는 베카쪽으로 기울어 아키코의 담화장이 전경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1.2 담화관계

서술자와 독자의 관계는 인칭이나 호칭을 통해서 나타나고, 딸(베카)과 어머니(아키코)의 관계는 서법성을 통해 나타난다. 우선 호칭을 살펴보면, ST에서 베카와 아키코는 각각 자신의 어머니와 관련하여 서술할 때 ‘my mother’로 지칭한다. 하지만 TT에서는 ‘엄마’로 서술한다. 일상적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칭할 때 어머니보다는 엄마로 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소설에서 엄마 대신 어머니로 서술한다는 것은 서술자와 독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가 된다. ST는 서술자와 독자의 관계가 보다 격식성을 띠는데 반해, TT는 보다 비격식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에긴스에 따르면, 격식을 갖추수록 정서적인 공감대는 약하다(Eggins 1994: 65). 따라서 ST의 서술자와 독자는 거리감이 있으며 정서적인 공감대가 약한 반면, TT의 서술자와 독자는 좀 더 가깝고 정서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의무서법성, 인식서법성, 서법성이 부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문학 텍스트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 한 형태가 전체에 지배적일 수도 있다.”(Simpson 2004: 127)고 한 것처럼 *Comfort Woman*에서도 텍스트 전체로 볼 때 세 형태가 이야기의 내용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특히 베카의 장에서는 인식서법성으로 어머니에 대한 거리감, 당혹감, 불확실성을 전경화 하였다. 베카의 불확실성은 어머니가 일제시대 때 성적 착취를 당했다는 점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어머니가 왜 정신적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인식서법성은 아키코의 장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소망이나 의무를 표현하는 의무서법성으로 서술자가 경험한 사건을 명확하게 전경화 하였다. 특히 인덕의 혼이나 다른 혼을 만날 때는 의무서법성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문 4)는 어머니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장면이다. 베카는 어머니가 일제의 종군위안부였다는 점,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알지 못한다. 베카가 어머니의 행동을 묘사할 때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어휘 ‘as if, might, could have led’ 등을 자주 사용한다.

(예문 4)

ST: During these times in which she shouted and punched at the air above her head, dancing as if to duck return jabs, I was afraid to let her out of the house, both because she might never come back and because— like a wandering *yongson* ghost finding its way back to its birthplace— she might. After roaming the streets, she could have led everyone back to me, the one who would have to explain my mother's insanity. (P5)

TT: 엄마가 소리를 지르며 마치 되돌아오는 짐을 피하려는 듯이 날뛰며 허공을 들이 받으려는 동안 나는 그녀가 집 밖으로 나갈까봐 두려웠다.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고 탄생지로 되돌아가려고 길을 찾아 방향하는 용선 귀신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거리를 배회한 후 그녀의 실성을 설명하는 사람들을 내게 데리고 올 수도 있었다. (P15)

(예문 4)에서 as if는 ‘듯이’로, might와 could는 ‘수도’로 번역하여 베카가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확실이나 거리감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ST처럼 TT에서도 베카가 어머니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는 친밀한 관계라기보다는 다소 소원한 관계로 나타났다.

(예문 5)는 아키코의 장이다. ST에서 아키코는 죽은 인덕의 혼을 실제로 본다고 믿고 인덕이가 자신에게 직접 말한다고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현재시제 ‘make, says, is, are’는 확신을 나타내는 의무서법성에 해당된다.

(예문 5)

ST: I make seaweed soup for myself now, for milk for my living daughter. Induk says my body is weakest after birth, but also at its most flexible. Our bones are as soft and changeable as those of the fetus we carried for nine months. This is the time we are most female, she says. Myokkuk is for women, for life. (P37)

TT: 나는 살아 있는 딸에게 줄 젖이 나오게 하려고 직접 미역국을 만들었다. 인덕은 내 몸이 출산후 아주 약해졌다고 말하지만 아직은 탄력성이 있었다. 우리의 뼈는 아홉 달 동안 배고 있던 태아의 뼈처럼 부드럽고 쉽게 변한다. 이때가 우리가 가장 여성다운 때야, 미역국은 여성들을 위한, 생명을 위한 것이지, 라고 인덕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린 듯했다. (P62)

(예문 5)의 TT는 ST와 달리 과거시제 ‘만들었다, 있었다, 듯했다’로 번역하여 확신하는 정도가 다소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says’를 ‘어딘가에서 들린 듯했다’라는 인식서법성으로 번역하여 인덕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재의 생생한 경험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모호한 경험으로 서술하였다. *Comfort Woman* 전체에서 아키코는 인덕의 모습을 보고 인덕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점을 잠깐이라도 의심한 적이 없다. 아키코는 죽은 인덕의 혼이 자신의 몸으로 들어왔다고 분명히 믿고 있으며 실제로 인덕의 모습을 보고 듣는다고 알고 있다. 아키코는 인덕의 혼으로 인해 무당이 된 것이었다. (예문 5)와 유사한 형태는 (예문 6)에서도 볼 수 있다. ‘perhaps’는 불확실을 나타내는 인식서법성에 해당된다.

(예문 6)

ST: Finally, perhaps by way of my dreams, Induk slipped into the mother's apartment, (P113)

TT: 마침내 내 꿈을 통해 인덕은 시어머니의 아파트로 조용히 들어온 것 같았다. (P163)

(예문 6)에서 ‘perhaps’는 ‘by way of’ 앞에 있으므로, 들어온 방법이 꿈을 통해서인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인지 확실하지 않을 뿐이고 죽은 인덕의 혼이 아파트로 들어온 것은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TT에서 ‘내 꿈을 통해’는 확신하는 반면 ‘인덕은 시어머니의 아파트로 조용히 들어온 것’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즉 ‘내 꿈을 통해’ 대신 ‘인덕은 시어머니의 아파트로 조용히 들어온 것’을 인식서법성으로 번역하여, 아키코가 인덕의 혼을 막연하게 느끼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3.1.3 담화방식

담화방식은 “상호작용에서 언어가 하는 역할”(Eggins 1994: 52)이므로 발화를 서술하는 양상과 관련되어 있다. 베카가 서술하는 장(1장, 3장, 5장, 8장, 12장, 15장, 17장, 18장)은 대화가 주로 직접발화로 서술되는 반면, 아키코가 서술하는 나머지 장은 인용표시(“ ”)가 전혀 없는 자유직접발화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베카는 일반적인 무표적 형태로 서술한 반면, 아키코는 유표적인 서술 방식을 사용하여 특별한 문맥효과를 야기한다. 우선 베카가 서술한 예를 살펴보자.

(예문 7)

ST: "Yaaak!" I shoved my hands against my ears. "What are you doing, Mommy?"

My mother slapped down my hands. "You should listen, learn," she said. "This will be you one day."

"Not!" I yelled. "No way. I'm not going to scream like that for nothing."

"Not for nothing," my mother said. "I am crying for the dead. To show proper respect. To show love." (P172)

TT: “아아아악” 나는 손으로 귀를 막았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엄마가 내 손을 확 내렸다.

“넌 들어야 해, 알아야 해. 이것은 언젠가의 너일 거야.”

“아니야! 안돼! 나는 아무 일도 아닌데 그렇게 소리 지르지는 않을거예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야. 나는 죽은 자들을 위해 울고 있는거야. 올바른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지.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야.”

엄마는 말했다. (P246)

(예문 7)의 TT는 ST처럼 아키코와 베카의 대화를 직접발화로 서술하여 두 사람의 대화가 뚜렷하게 묘사되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서술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등장인물의 발화를 전달한다.

(예문 8)은 아키코가 서술하는 장으로, 밑줄 친 부분은 자유직접발화이다.

아키코의 장에서는 발화가 모두 인용표시가 전혀 없어 서술인지 대화인지가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가잘라(Ghazala 2011: 95)에 따르면, 자유직접발화는 서술자의 목소리와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혼동될 수 있는 모호한 효과가 난다. 서술된 발화를 다 읽어야지만, 그 부분이 서술자의 목소리인지 등장인물의 목소리인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 이러한 일시적인 비결정성으로 독자는 직접발화보다 읽는 속도를 늦추어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

(예문 8)

ST: I stepped onto the rocks at the shore and waded toward the center.

Stop, I heard the minister yell. That's far enough.

The dress billowed around me, a bell on the water, and then, caught by the current, entangled me. I fell to my knees.

See how earnest she is, the minister shouted to the witnesses as he yanked on my elbow. What's the matter with you? he whispered. Get up!

(P103)

TT: 나는 해안에 있는 바위로 걸어가 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만 가. 거길 너무 멀어.”

목사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하얀 가운이 마치 물 위에 뜬 종처럼 내 주위에서 부풀어 오르더니 급류에 휘말려 나를 업어댔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가 얼마나 진지한지 보세요.”

목사는 내 팔꿈치를 껍 잡아당기며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일어나!”

그는 속삭였다. (P149)

(예문 8)의 TT에서는 유표적인 서술방식인 자유직접발화가 무표적인 직접발화로 번역이 되어 특별한 문맥적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즉, 직접발화로 처리하여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효과보다는 객관적 입장에서 발화를 전하게 된다. “1인칭 시점에서 자유직접발화를 사용하게 되면, 이야기는 점차적으로 1인칭에 초점이 맞춰져 ‘나’라는 서술자가 독자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고백하는”(조의연, 한미애 2012: 186) 효과가 전경화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직접발화는 등장인물의 내적인 인식 작용 즉 의식적인 생각이나 무의식적

인 생각,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기대와 예측,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연상 등을 포착할 수 있는데(권영민 2009: 154), TT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3.2 사회방언

3.2.1 이민자 언어

*Comfort Woman*에서 중요한 등장인물인 레노는 일반 영어에서 변이된 영어를 사용한다. 이는 레노의 발음이 표준 발음과는 다르다는 점을 나타내고 레노가 이민자라는 점을 부각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방언은 레노가 하는 발화(1장, 12장, 14장, 18장)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양상을 띠며 나타난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예문 9)의 밑줄 친 부분과 같다. *this*는 *dis*로, *daughter*는 *daughtah*로, *going*이나 *talking*은 *goin'*이나 *talin'*으로, *them*은 *em*로, *What are*는 *Whatchu*로, *mother*은 *maddah*로, *would*는 *woulda*로 발음한다.

(예문 9)

ST: "Took dis to Vegas—dah city, not my daughtah—but dah money no jump back to me like one frog. Shit, what those Japs"—here Reno flicked her wrist above her head—"eh, scuze me, Great-Auntie Asami, may you rest in peace—talin' about?" she jiggled the chin, and the frog jumped in front of my mother's face.....

"Whatchu goin' do wit all them frogs?" Reno had asked when I told her I planned to sell my mother's house.

"I dounno," I told her. "Goodwill, I guess."

"Girlie," Reno said, "I let me have em. I sell em. fifty-fifty. All the old customers goin' want a souvenir from your maddah, the famous frog psychic. I find all the frogs homes." Reno laughed like she'd said something funny, then said the same thing she told me when it came time to make funeral arrangements: "Your maddah woulda wanted it dis way." (P159-160)

TT: “이것을 베가스—내 딸이 아니라 그 도시 말이야—에 가져갔었어. 그

런데 개구리처럼 돈이 튀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거야. 제길, 그 일본인들이—여기에서 레노 아줌마는 손목을 자신의 머리위로 획 움직였다. —“죄송합니다. 대고모님, 편안하게 잠드소서. 뭐라고 말하든지 알아?” 그녀가 시슬을 앞뒤로 빨리 흔들자 개구리가 엄마의 얼굴 앞에서 튀었다.....

“이 많은 개구리를 어떻게할래?”

내가 엄마의 집을 팔 계획이라고 말하자 레노 아줌마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애야.”

레노 아줌마가 말했다. “날 주렴, 내가 팔게. 오십대 오십으로 하자. 모든 옛 고객들이 유명한 개구리 영매인 네 엄마의 유품을 갖고 싶어할 게다. 이 모든 개구리에게 집을 찾아 주는 거지.”

레노 아줌마는 재미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웃었다. 그리고 장례 준비를 할 때 와서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네 엄마는 그렇게 하길 원할 게다.” (P228)

(예문 9)의 TT는 ST와 달리 사회방언이 표준화되어 레노가 이민자라는 점이 전경화 되지 못했다. 이 예문 이외에도 1장, 12장, 14장, 18장에 나오는 레노의 비표준적인 발음은 TT에서 모두 표준화되었다. *Comfort Woman*의 주요한 등장인물은 베카와 아키코를 포함하여 모두 소수민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레노의 발화를 표준어에서 벗어나게 번역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TT의 첫 문장을 ‘이것을 베가스—내 딸리 아니라 그 도시 말리야—에 가져갔었어.’ 식으로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는 듯한 발음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 독자들이 읽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레노가 소수민족이며 이민자라는 점을 전경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하티姆과 메이슨 (Hatim and Mason 1990: 45), 산체스(Sánchez 2007: 126)가 언급한 것처럼, 원천문화의 지역방언을 목표문화의 지역방언으로 바꾸어 번역할 경우 다른 함축 의미를 줄 수 있어 번역이 불가능한 반면, 사회방언은 번역이 가능할 수 있다.

3.2.2 반언어

베카와 아키코가 소수민족이라는 점은 표준 발음에서 벗어나게 발음하는

레노와 달리 반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Comfort Woman*에서 반언어는 한국어 어휘를 소리나는 대로 로마자로 표기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로마자 표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 (1) My mother did not make her *yonae* love match, nor did she receive a *chungmae*, an arranged match. (P180)
- (2) we pooled our rations to prepare *bi bim kook soo* for the afternoon meal (P99)
- (3) I can see the blue *hyolgwan* burning under its skin. (P85)

(1)은 영어권 독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어 어휘를 로마자로 표기한 다음 영어로 의미를 전하는 경우이다. (2)는 문맥을 통해 음차표기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이다. 비빔국수를 *noodles with assorted mixtures*로 하는 대신 음차표기하여 *meal*의 한 종류라는 제한적 의미만 전한다. (3)은 설명도 없고 문맥을 통해서 제한적 의미도 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혈관을 *a blood vessel* 대신 *hyolgwan*으로 음차표기하여 한국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어휘가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 *Abugi*, *Omoni*, *Aniya*, *aigu* 등이 발견된다.

할러데이 설명으로 보면, 두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이 반언어에 해당된다. 특히 세 번째 유형과 같은 음차표기 형태에 대해 주르(Zur 2002: 3)는 영어권 독자에게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작가가 함축적 독자층(*implied readers*)을 영어권 독자로 상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계 (미국) 독자를 상정한 것이라는 점만 알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무의미할 수 있는 이러한 유형에 대해 할러데이는, 반언어의 표현방식은 기존 언어의 견지에서 보면 모호하고 간접적이며 은유적지만 그 자체의 견지에서 보면 현실을 구성하는 데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표현이라고 제시한다(Halliday 1978: 181). 반언어는 정체성을 규정하고 옹호하기 때문이다(172). 따라서 *Comfort Woman*에 사용된 반언어는, 미국문화에서 살아가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소수 민족으로서 정체성이나 이념을 반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 위의 예문을 번역한 것은 아래와 같다.

- (1') 엄마는 연애결혼도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예물을 교환하고 결혼식을 치르는 중매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다. (P255)
- (2') 우리는 점심식사로 비빔국수를 만들기 위해 국수를 물에 담그고 있었다. (P114)
- (3') 푸른 혈관이 타오르는 것 같은데. (P127)

위의 번역문을 읽으면 한국인 작가가 처음부터 한국어로 소설을 쓴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다. (3')의 혈관처럼 ST에 로마자로 표기한 어휘를 글씨체를 달리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맥과 관계없이 강조의 효과만 낼 뿐이다. 따라서 “기존 언어의 규범을 자의식적으로 저항”(Halliday 1978: 180) 하여 서술자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반언어의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정체성, 유대감이라는 반언어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 속에서 영어로 표기하는 방법은 어떤까? 예를 들면 본문에서 ‘혈관(hyolgwan)’으로 표기하고 역자서문이나 역자후기에 영어로 표기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혈관’이 ST에 음차표기 되었다는 점과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반언어를 포함하는 사회방언은 “화자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투사하고 사회관계를 규정”(Nikolas 2001: 186) 하므로, 번역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3.3 분석결과 및 논의

*Comfort Woman*과 『중군위안부』를 대조하고 분석한 결과를 간략히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Comfort Woman*과 『중군위안부』의 언어변이

		Comfort Woman		중군위안부	
		Beccah 장	Akiko 장	베카 장	아키코 장
사 용 역	담 화 장	(현재)	(현재) 베카가	(현재)	(현재)
		글쓰는 시점	1살 무렵	모호	모호
		(과거) 알 수	(과거)	(과거) 알 수	(과거)
		없는 어머니	중군위안부	없는 엄마	중군위안부

Comfort Woman			중군위안부	
담화 관계	독자에게 격식, 공감대 적음		독자에게 비격식, 공감대 형성	
	어머니에 대한 거리감	명확	엄마와 다소 가까움	불명확
담화 방식	직접발화	자유직접발화	직접발화	직접발화
사회 방언	이민자 언어, 반언어		없음	

사용역과 관련하여 베카와 아키코의 담화장은 시체를 통해 각각의 이야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베카의 장에서 현재 시점은 글을 쓰는 시점인 반면, 아키코의 현재 시점은 베카가 한 살 무렵이었다. 하지만 TT에서는 현재시체를 과거로 번역하여 두 사람의 현재 시점이 불분명해졌고 이야기에 혼동을 주었다. 담화관계와 관련하여 두 서술자와 독자의 관계는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며 공감대가 적은 반면, TT에서는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다소 가까웠고 공감대가 좀 더 형성되었다. ST의 베카의 장에서는 인식서법성으로 어머니에 대한 거리감이 나타났고, 아키코의 장에서는 의무서법성을 사용하여 위안부로서의 상처와 무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독자에게 명확하게 표현했다. 하지만 TT에서는 특히 아키코의 서법성을 부분적으로 인식서법성으로 바꾸어 아키코가 겪은 상처와 경험을 전경화 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않게 묘사하였다. 담화방식과 관련하여 ST의 베카의 장에서는 직접발화를, 아키코의 장에서는 인용표시가 없는 자유직접발화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고 전경화 효과가 낮았다. 하지만 TT의 아키코의 장에서는 자유직접발화 대신 직접발화를 사용하여 베카와 아키코의 서술방식은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 결과 ST에서는 베카와 아키코라는 등장인물의 설정이 뚜렷하고 특징적인 반면, TT에서는 등장인물의 설정이 뚜렷하지 못하고 특징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사회방언은 이민자 언어와 반언어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방언은 서술자나 등장인물의 사회적 정체성이나 민족성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이민자인 테노는 표준화 영어에서 벗어난 영어를 사용함으로써 서술자 베카와 아키코처

럼 소수민족임을 드러내었다. 베카와 아키코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소수민족으로서의 저항의식 뿐 아니라 한국민족과의 연대감이나 유대감 등이 반언어를 통해 암묵적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TT에서는 레노의 이민자 언어나 베카와 아키코의 민족적 유대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반어적 표현이 모두 표준적인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따라서 소설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되지만 사건을 전개하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전달되므로, TT에서는 이야기의 일부분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다.

사용역 중 담화관계에서 서술자와 독자의 관계가 비격식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번역하고, 사회방언 중 한국어 어휘를 로마자 표기로 나타낸 반언어를 아무 장치 없이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니, 마치 한국인 서술자가 한국인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났다. 즉, TT의 서사과정에서 번역되었다는 점이 잘 드러나지 않아 원본을 읽는 듯했다. 따라서 『중군위안부』는 체트먼(Chatman)의 서사과정 그림 1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체트먼의 서사과정은 번역 텍스트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므로 번역가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먼데이(Munday 2008: 12)는 언급하며, TT의 서사과정을 그림 2와 같이 제시한다.

저자- 함축저자- 서술자- 텍스트- 피서술자- 함축독자- 독자

그림 1 체트먼의 서사과정

ST독자/

TT

실제번역가- 함축번역가- TT서술자- TT피서술자- TT함축독자- 독자

그림 2 먼데이의 TT 서사과정

먼데이에 따르면, “번역 텍스트는 원천과 목표가 혼합된 텍스트이고, 저자와 번역가가 결합된 형태이며, 번역가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의사결정의 결과인 TT 모자이크가 ST 모자이크에 덧씌워진 것이다”(Munday 2008: 13). 먼데이의 서사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번역가의 역할이다. 번역가는 책표지 등의 결 텍스트 뿐 아니라 텍스트 상에서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으며 TT 독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번역가의 중재적인 역할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가

의 중재 없이 작가가 직접 이야기를 서술한 것 같은 『중군위안부』는 ST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생한 등장인물 설정, 문체적 특성, 민족적 정체성도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번역가의 중재적 역할도 잘 드러내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Comfort Woman*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언어변이 형태(사용역과 방언)를 중심으로 목표 텍스트 『중군위안부』의 번역양상을 분석하고 논의하고자 했다. *Comfort Woman*에서는 세 명의 주요 등장인물인 베카, 베카의 어머니 아키코, 레노 아줌마는 각각 처한 상황이나 배경에 따라 언어사용의 차이가 다소 뚜렷했다. 반면, 『중군위안부』에서는 등장인물 간 언어사용의 차이가 뚜렷하지 못했다. 그 원인은 첫째, 아키코의 장에서 담화장과 담화관계와 관련 있는 현재시제를 과거시제로 번역하고, 담화방식과 관련 있는 자유직접발화를 일반적인 직접발화로 번역함으로써, 아키코의 이야기가 특징적으로 전경화 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소설을 전개하는 일반적인 시제는 과거시제와 직접발하이므로, 현재시제나 자유직접발화를 사용하게 되면 문맥을 전경화하는 효과가 난다. 둘째, 사회방언인 이민자의 비표준적인 언어와 반언어를 표준적인 언어로 번역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비표준적으로 언어를 사용하여 사회적 위상을 드러내고 다른 인물과 차별화가 되는데, 목표 텍스트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천 텍스트에서는 각각의 등장인물이 특징적으로 생생하게 설정이 된 반면, 목표 텍스트에서는 등장인물이 특징적으로 설정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다.

소설 텍스트의 언어변이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각 등장인물은 각각 자신의 상황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 언어를 달리 사용하는데, 이러한 점이 생생한 등장인물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고 소설의 문체적 특성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술자의 민족적 정체성이나 유대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서술자와 독자의 관계를 비격식적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관계로 설정하여 번역하고, 서술자의 반언어에 내포된 저항의식이나 사회적 갈등과 이민자의 비표준적인 언어를 번역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처음부터 한국인

작가가 한국인 독자를 대상으로 쓴 것처럼 목표 텍스트가 읽혔고 서사과정에서 번역가의 존재나 역할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목표 독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번역가의 중재적 역할 때문이다. 따라서 원천 텍스트의 독자로서 동시에 목표 텍스트의 저자로서 번역가의 역할을 담화관계나 반언어 등을 통해서 텍스트에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권영민 (2009) 『문학의 이해』, 서울: 민음사.
- 조의연, 한미애 (2012) 「최대의 적합성으로 본 자유직접발화」, 『통번역학연구』 16(1): 177-203.
- 한미애 (2011) 「서술의 다양성을 번역하기」, 『번역학연구』 12(1), 263-283.
- Eggins, Suzanne (1994)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London: Pinter.
- Ghazala, Hasan (2011) *Cognitive Stylistics and the Translator*, London: Sayyab Books.
- Halliday, Michael A. K. (1978)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Edward Arnold.
- Hatim, Basil and Mason, Ia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 New York: Longman.
- House, Juliane (2015)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Past and Present*, London & New York: Routledge.
- Irvine, Judith T. (2001) “‘Style’ as Distinctiveness: the Culture and Ideology of Linguistic Differentiation¹”, Penelope Eckert and John R. Rickford (eds.) *Style and Sociolinguistic Variation*,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 Jeffery, Chris (2002) ‘Register-analysis as a Means for Eliciting the Meaning of Literary Texts’, *Literator* 23(2): 87-104.
- Leech, Geoffrey N and Short, Michael H (1981). *Style in Fiction*, London &

New York: Longman.

Marco, J (2000) 'Register Analysis in Literary Translation: a Functional Approach', *Babel* 46(1): 1-19.

Munday, Jeremy (2008) *Style and Ideology in Translation*, New York & London: Routledge.

Nikolas, Coupland (2001) 'Language, Situation, and the Relational Self: Theorizing Dialect-style in Sociolinguistics', in Penelope Eckert and John R. Rickford (eds.) *Style and Sociolinguistic Variation*, Cambridge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Sánchez, María (2007) 'Translation and Sociolinguistics', *Babel* 53(2): 123-131.

Simpson, Paul (1993) *Language Ideology and Point of View*,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4) *Stylistics: A Resource Book for Students*, London & New York: Routledge.

Zur, Dafna (2002) 'Covert Language Ideologies in Korean American Literature'. Available at http://congress.aks.ac.kr/korean/files/2_1358742297.pdf.

<분석텍스트>

Keller, Nora Okja (1997) *Comfort Woman*, New York: Penguin Books.

박은미 옮김 (1997) 『중군위안부』, 서울: 밀알.

[Abstract]

**Translation of Language Variation
Characterized in *Comfort Woman* by Nora Okja Keller**

Han, Miae
(Dongguk University_Seoul)

This paper analyzes the source and the target text of *Comfort Woman* in terms of language variation which is divided into register and dialect. Halliday (1978) suggests that dialect is a variety of language according to the users, and register is a variety of language according to the uses: field, tenor and mode of discourse. Two first-person narrators and a character in the source text use language distinctively depending on the situations and the social status. However, their language uses are not distinguished in the target text.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present point of view is obscure since some of the present tenses connected with field and tenor of discourse are translated into the past tense. The second is that deviant free direct speech linked to mode of discourse is rendered into normal direct speech, and the comfort woman story of Akiko is not foregrounded. The third is that immigrant language and antilanguage, which is one of social dialects and "a language of social conflict" (Halliday 1978: 185), are changed into the standard language in the target text. Since language variation depending on the users and the uses is related to vivid character developments, a stylistic feature, and ethnic identity of Korean-American narrators, it should be represented in the translated text through the translator's mediating role.

▶ Key Words: Halliday, language variation, register, social dialect, antilanguage

한미애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hanmarian@daum.net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비평

논문투고일: 2016년 7월 30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2016년 9월 22일